



“인도는 나를 길러준 나라”

6 소설 '망장' 주인공 현동화 회장



나이팅게일, 부처님 딸로

12 간호사관학교 불자생도 수계법회



“부처님 광명은 삼천계로”

13 내한한 불광회 총회장 심정 스님



“원수까지 섬기는 것이 불공”

17 선지사-해월정사 회주 천제 스님

인도성지 한국사찰건립추진 구성을 통해 본 해외포교 실태

인도 내 불교단체인 인도한국불교협회(회장 현동화) 회원들이 여법한 한국절 불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008년 6월 월우·도웅·성관 스님과 현동화 회장(재인도한인회 고문) 등 9명(총인 15명)이 6월 16일 인도성지 한국사찰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끈다. 1991년 9월 결성한 인도한국불교협회가 1차 한국불교 활동 강화를 천명하며 구성된 위원회는 현동화 회장 귀국에 맞춰 6월 16일 1차 회의를 열고, 대외활동 강화를 선언했다. 6월 23일 2차 회

의에는 정관 개장 등을 결의하고 달라이라마 초청법회 추진 등 불사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에도 논의했다. 부처님 4대 성지 가운데 네팔에 있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을 제외한 성도지 보드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 반열반지 쿠시나गर에 각각 한국 사찰을 건립중인 월우 스님(보드가야 고려사), 도웅 스님(녹야원), 성관 스님(쿠시나गर) 대한사과 현동화 회장(재인도한인회 고문)으로부터 인도성지의 한국 사찰 현황과 현지교도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절다운 절 한 채 없다니...

“인도성지에 한국절만 없어”=세 스님은 왜 인도에서 불사를 시작했을까? 1987년 인도 바라나시 산스크리트 대학에서 유학했던 도웅 스님을 비롯해 1989년 성지 순례 중 보드가야를 찾은 월우 스님, 1991년 배낭을 둘러메고 쿠시나गर에서 기도했던 성관 스님은 한국만 제대로 된 절이 없어 불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발심은 순간, 불사는 정진만머려워=“한국 절을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불사는 깨달음을 얻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았다. 인도에서 토지소유는 법안만 가능했다. 현동화 회장 도움으로 사단법인 인도한국불교협회를 결성한 1989년에야 스님들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3년 건물 2동을 완공한 월우 스님은 경제적 어려움에 고려사를 떠난 적도 있었다.

성관 스님이 1993년 시작한 대한사 불사도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중단하기를 싫어 반복했다. 도웅 스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구도역정 같은 세 스님의 불사이야기는 한결 같았다. “중단과 한국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 직접 나서야 했다.”

월우·도웅·성관 스님 사찰 건립불사 추진
교계 관심·지원 부족... ‘불교 세계화’ 먼길

인도성지에 한국사찰 왜 필요할까? = 녹야원 개원법회 날이었다. 개원을 알리는 플랑카드를 보고 한국 여행자가 녹야원을 찾았다. 인도음식이 입에 안 맞아 며칠을 굶었다는 여행자는 잡채 등 법회를 위해 마련한 한국음식을 먹고 4시간 기절하듯 잠들다 깨어났다. 도웅 스님은 “타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갑다. 그런 점에서 불사를 위한 한국사찰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이 인도에서 여는 법회는 주로 인도인 대상의 개종법회다. 도웅 스님은 인도인 의사를 고용해 병원 운영도 했다. 하루 100여명 이상의 순례객과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녹야원은 그들에게 극락정토와 다름없었다. 월우 스님은 “독일, 미국인 관광객들은 미안마, 티벳 등 사찰을 돌려 각국의 불교문화를 배운다. 인도성지의 한국 절은 한국불교를 알리는 더 없는 기회”라 강조했다.

한국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 절실

=한번은 세 스님이 전 총무원장 스님을 면담해 금일봉을 받았다. 100만원이었다. 셋이 나왔더니 30여만원이라 스님들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스님들은 인도성지를 찾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절을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지적했다. 월우 스님은 “미안마 순례객만해도 호텔이 아닌 자국 사원에서 숙박한다”며, 5성 호텔만 찾는 한국인의 호화 성지순례를 비판했다. 한국 절을 피해 여행일정을 꾸리는 개신교 신자가 운영하는 여행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관 스님은 “매년 한국에서 인도를 찾는 5000여명이 조금씩 불전만 놓아도 불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아쉬워했다.

인도한국불교협회와 현동화 회장의 발원=인도한국불교협회는 인도에 불교도 대사파견도 진행 중이다. 김상길 총무는 “바티칸 등 외교관 파견 규정의 형평성에 따라 불교도 대사를 파견해야 국가

위상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인도성지 불사가 이만했던 것은 현동화 회장 공덕이다. 현 회장은 “세계 어느 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사찰을 인도성지에 건립하는 것이 소원”이라 말했다.

중단의 해외포교 지원 시작해야 = 열악한 환경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을 중단에서 도울 수 없을까? 조계종 사회부 국제팀 양정수 팀장은 “1년 3000여만원 예산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월세도 못내는 해외포교당 지원도 벅하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한국 순례객이 찾는 인도성지 한국사찰은 그나마 상황이 좋다. 한국 사람이 잘 안가고 불교국이 아닌 곳은 행인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한 불자는 “해외특별 교구를 만들어 해외포교 지원을 확대하고, 대형사찰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은 2006년 7월 포교국장 회의에서 ‘1교구 분사 1해외포교당 갖기’ 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조계종 해외포교 시제는 멈춰있다. <관련 인터뷰 6면>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불고 알고 싶어 왔습니다”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20명은 6월 2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이웃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함께 하는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에 참가하여 이를 깨 임정으로 서울 조계사와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했다. 안내를 맡은 영공 스님(조계사 선감)이 함께 방문한 이종수 신부와 학생들에게 조계사와 불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글/사진=박재원 기자

정부 종교편향 불교계 뿔났다

조계종·불교단체, 근절 기구 구성 등 대응책 마련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의 사찰누락사건, 경기여고의 성보매입사건, 어청수 경찰청장이 조용기 목사와 함께 경찰복을 입고 식사 도화 포스터에 등장한 사건 등 일련의 광범위한 개인과 관할사건들에 대해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불교계는 이러한 종교편향 행위들이 ‘현 정부의 종교코드 정치와 맞물려있다’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항의와 관련자 문책, 제도적인 재발방지 요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스님은 6월 24일 유감 논평을 통해 “정부는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조계종과 함께 불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상시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

다. 6월 26일 조계종 총무원과 종교평화위원회(대표 손안식, 참여불교 재가연대대표 김동진) 등 교계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신도회 정순영 정보관 리실장은 “어청수 경찰청장 사건 발생 후 바로 경찰회장이 사퇴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에서 불교 인재를 보호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도 없다”며 범불교연석회의 출범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거나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교계 성명서와 항의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6월 23일과 25일 종교평화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질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조계종 중앙총회 초선의원 23명과 조계종 자성정정실천운동본부(대표 진관도)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종교편향을 성토했다. 일반 불자들도 격앙됐다. 박준호(서울·43)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린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대통령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조계사에서 만난 다른 불자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실태를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다. 청와대 권력층 핵심에 컨트롤타워가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화·정책화된 복음화 책동에 대응해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성우·조동성 기자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 척척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 생산되는 세계 희귀 금강염주와 울이온, 안일칼리, 게르마늄 등을 이온 결합하여 특수 소성된 진화경쟁력인 최첨단 기능성 염주
간 245,000 / 02)723-0909

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 **관불수향**
전단향이 그득한 향양수로 관불,관육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조각·공양물 02)3663-6777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تن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정성사
연등 저등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전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 특징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기도 아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